복음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서 나쁜 점

(시편 6:1~10)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4.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서 나쁜 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서 나쁜 점'

복음은 그냥 뉴스가 아닌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 굿 뉴스라면 좋아야 할 텐데 왜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대할 대에 판단중립적인 상태에서 단순한 사건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리이자 기쁜 소리로 깊은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들은 뉴스를 전할 때에 기본원칙으로 중립성을 지킵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굿 뉴스인 것입니다. 굿 뉴스가 되려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은 슬픈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굿 뉴스가 구원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멸망으로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굿 뉴스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굿 뉴스가 되기 위해 전제된 슬픔과 절망과 멸망을 평소에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특별한 전제조건을 가진 자들에게만 복음이 됩니다. 앵커들이 뉴스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처럼 중립적이면 우리 모두가 받아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굿 뉴스이기 때문에 굿이 되기 위한 bad의 전제조건을 체감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슬픔 절망 멸망의 상황이 아니라면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듣는 교인들이 굿이 아닌 bad의 상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다른 상황을 bad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

미를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가 전제로 하는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기 때문에 굿 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상황을 멸망으로 여기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십자가를 복음으로 전하려다보니 십자가는 왜곡되어서 부자 되는 길이 되고 돈 버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이 없어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취직하지 못하거나 승진을 못해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굿 뉴스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취직하고 승진하고 건강해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이것을 굿 뉴스라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한 것입니다. 항상 슬퍼만 하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굿 뉴스가 됩니다. 반대로 슬픔을 왜곡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굿 뉴스는 나쁜 점이 됩니다. 그들은 굿 뉴스가 전제로 하는 슬픔과 전혀 다른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것을 항상 슬퍼하는 자에게만 십자가 사건은 굿 뉴스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면 모든 일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벌려도 불평이고 적게 벌려도 불평합니다. 아내가 예뻐도 불평이고 못 생겨도 불평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불평이고 못 해도 불평합니다. 건강해도 불평하고 아파도 불평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 범사가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십자가는 굿 뉴스가 됩니다. 반면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복음 사건은 굿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항상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거나 못 벌거나 감사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 따로 일곱 편이 ‘참회의 시’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참회의 시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위대했던 다윗 왕이 저지른 밧세바 사건은 천인공노 할 범죄이었습니다. 성군 다윗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밧세바에 대한 간음죄, 우리야를 살해한 살인죄, 우리야에게 거짓으로 편지를 주어서 속인 거짓죄, 이웃의 아

내를 탐낸 탐욕죄 등으로 죄악의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앞의 시편 5편을 전제로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번제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될 경우에 악인이 될 것임을 노래했고, 그래서 상번제가 드려지는 아침에 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몸에 박히게 된 체질 상 나도 모르는 사이 빈 마음에 세상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손에 쥠으로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체질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번제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린양의 죽음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기름을 섞어서 태웁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매순간마다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루 동안 나의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음을 뜻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번제로 드려지는 옵션을 간과한다면 마음에 세상을 담은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윗이 5편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담고, 그것들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타락한 삶도 믿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위됩니다.

마음에 돈을 담고 있다면 믿음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믿음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마음에 자녀를 담고 있다면 자녀의 형통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믿음을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 말로 죄악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려하고 자녀를 잘 키워서 기뻐하려하고 무병장수로 기뻐하려는 마음이 죄악인 것입니다.

참회(懺悔)란 곧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 노래하듯이 상번제를 간과한 죄인의 삶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시편 5편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우리야를 속이고 죽이며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마음의 빈 공간에 밧세바를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를 거부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마음에 담자 밧세바를 손에 쥠으로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번제를 간과함으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본문과 이 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합니다.
봄이 돌아와서 왕들이 전쟁을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저녁때에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성막의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을 모두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짐이 없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전부 마음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그것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기준대로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뉴스를 보면서 중립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 정치인은 뭐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되어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라면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하든 내 기쁨과 만족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보이고 들리는 대로 세상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상번제의 완성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마음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마음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론으로라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들이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밧세바 사건은 우리에게서 날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에 대해 “밧세바-우리야 패턴”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오면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야로 상징되는 방해물이 나타나면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상번제를 간과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죄를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제1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자녀가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자녀가 신입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고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은 곧 다윗이 밧세바를 마음에 품고 손에 쥐려하고 방해물인 우리야를 제거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멸망으로 치닫고 맙니다.
이 참회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을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 아파하는 마음이 참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내 행위에 대한 회개 이전에 먼저 하나님 이외에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잘못된 시작점을 정확하게 잡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밧세바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순간적이나마 착각하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음을 아파하는 참회가 없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이유도 곧 참회가 없기 때문이고, 참회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땅입니다.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으면 슬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담이 계속해서 슬퍼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의 땅에서 쫓겨났음에도 사탄의 독이 퍼진 인간에게는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 살면서도 기쁨의 환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면 기쁠 것이라는 환각을 봅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면 기쁠 것이라는 환각을 봅니다. 사실 자녀가 지방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내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는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체성으로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체성의 활용도는 나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고 그 판단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과 기쁨의 삶이 지속되고 평강의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쫓겨났는데도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무시무시한 타락의 효과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슬픔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로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며 가족을 대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사업을 하지 못하고,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기쁨이 좌우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데도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이 참회가 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 때에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태권도 학원을 보냈는데 좌로 가라면 우로 가고 뒤로 가라면 앞으로 오고 그랬답니다. 제 아들 때문에 도대체 태권도 학원에서 가르

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항의가 왔습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시키고 벌로 아래층 차고에 가두고 2층으로 올라가자 문 밖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무서워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 속에서 배어나오는 절망감이 제 마음까지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애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이나마 이 아이에게 아빠와 엄마로부터의 격리가 인생의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김우중 씨가 대우를 통째로 잃어버릴 때의 심정보다 더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다음부터 잘하라는 말로 무마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달려들어서 껴안는데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저도 무조건 껴안고 쓰다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뼈가 떨리오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뼛속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차고에 갇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리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데도 아무도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격리됨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참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고에 갇힌 7살짜리 아이가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는 것보다 몇 십 배나 더 큰 절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닦으실 것이 복음의 길이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인 줄도 모르고 돈이 좀 없다고 절망합니다. 건강이 조금 상하면 절망합니다. 자녀가 일류대학 못 갔다고 절망하고 취직 못한다고 절망하고 승진 못한다고 절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절망이고 하나님 없는 것이 슬픔이고 아픔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아파하질 않습니다. 이론으로라도 믿으며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번제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이론으로라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뿐이시며,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마음이 그 길을 따라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인 척 나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함을 이론으로라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사흘이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정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이 들어야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하고 정이 들었고 배우자와 정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돈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건강과 정이 들어서 건강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알고 하나님과는 정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장가간다고 집을 떠날 때에 쉽게 헤어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절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이론으로라도 하나님이 내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조금씩 하나님과 정이 들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절망할 정도로 체감의 정도가 커질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계속 이어지며 틈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참회의 마음이 끝없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참회의 마음은 어느 한 순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참회의 마음을 가짐으로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참된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은 죽을 때까지 24시간 작동되는 참회의 심정을 바탕으로만 가능합니다. 참회가 살아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회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이고 멸망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원전이 가동 될 때에 끊임없이 감시되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회는 죽을 때까지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마음의 감시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절망할 줄을 모르는 온전한 뱀의 자식들인 저희들을 십자가로 뒤집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동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